

아버지 업보 지고 요절...세조가 직접 무덤 챙겨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 16

추존왕 덕종 - 경릉

덕종(의경세자):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맏아들, 1438~1457(20세)

아버지 업보를 지고 꽃다운 스무 살에 종생한 의경세자. 산맥보다 더 들판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예절이 바르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특히 해서에 능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세상 이치의 전후를 기할 정도가 되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날이 갈수록 악몽의 강도가 세어진다.

"이노옵! 네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만큼 내가 받아라." 하얀 소복에 빨간 띠를 두른 여인이 칼을 들고 달려든다. 세자는 비명을 지른다. 자리웃은 식은땀으로 축축하다. 내관이 들어와 세자를 혼든다. 아일대로 어린 세자의 몸은 부처의 고행상처럼 뼈만 앙상하다. 악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목을 조르고 사지를 비틀고 가슴팍에 비수를 꽂는다. 내의원에서 근기를 돌우는 방제를 올려도 소용없다. 밤낮 없이 세자 주변을 맴돌며 세자를 옥죄는 여인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다. 아들을 원통하게 잃은 여인의 혼령이 저주의 국판을 멈추지 않는다. 맏아들에게 달아붙은 원기를 쫓으려고 세조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애썼다.

자식에게 대물림된 업보에 역장이 무너진다. 원기를 향한 분노에 치를 떤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바닷가에 흩뿌린다. 원혼을 달랜 것이 아니라 불타는 원기의 한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백골마저 능멸당한 원혼의 저주는 하늘을 찌른다. 결국 세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위 놀러 죽었다. 단종이 죽은 지 한 달 후의 일이다.

사태의 전말을 알고 있는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자식을 가슴에 담고 명당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지고 떠난 아들의 무덤을 위한 세조의 노력은 광적이었다. 세조는 이미 조선 초 내로라하는 풍수의 대가다. 세조는 기구한 팔자에 풍수살이 단단히 끼어 있다. 아버지 세조의 왕릉을 잡으려 다녔고, 형인 문종의 능 그리고 이제는 자식의 무덤마저 잡아하려는 기막힌 팔자다. 후일에는 머리의 무덤에까지 관여했던 것이 세조의 풍수 팔자다.

택지 천거가 붓물처럼 쏟아지자, '상중하로 구별하여 울리라'는 어명과 함께 통행 계획을 짜서 친히 현장 답사를 한다. 고르고 골라 조성된 것이 경릉이다. 서오릉은 세조가 마련한 세조 혈통의 선산 왕릉이다. 동구릉 지역과 맞먹는 55만평의 서오릉이 만들어지게 된다. 경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소박하다. 병풍석, 무인석이 없다. 아담한 민간 무덤 같다. 장식을 버리고 편안하게 잠들라는 교훈 같다. 자식이 무슨 죄인가, 세



왕릉에서 바라본 덕종능.

조의 피우음이 흥건히 녹아 무덤을 쓰다듬고 있다.

의경세자는 한쪽의 딸 한씨(소혜왕후)를 아내로 맞아 1454년 월산대군을 낳고, 1457년에 자율산군(성종)을 낳았다. 경릉 정자각에서 바라볼 때, 왼쪽 높은 언덕에 묻혀 있는 이가 소혜왕후다. 그녀의 인생 역정 또한 만만치 않다. 15년간 왕세자비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다. 한창 나이인 21세에 과부가 되어 13년간 사가에서 살았다. 설움의 세월은 아들 덕분에 풀려나간다.

남편 의경세자가 죽기 한 달 전에 태어난 차남 자을

정 대신들의 논란이 들끓는다. 그것도 3순위자에게 딸력 왕관을 씌웠으니, 분분한 논란은 논란일 뿐, 역사는 흐른다. 차남이 왕이 되자 사가에 머물던 그녀는 존엄한 궁궐로 모셔져 당장 '인수대비'로 명명된다. 5년 후에는 왕대비로 봉해진다. 남편보다 48년이나 더 살다가 1504년 춘추 69세로 승하했다.

조선 왕릉 중 비의 능이 왕의 능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은 경릉이 유일하다. 석물도 더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 이유는 이렇다. 지아비 덕종은 1457년

정희왕후는 왜 3순위자인 자율산군에게 왕관을 씌워 줬을까? 한명회, 신숙주 등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결과라는 설이 있으나, 세조비 윤씨의 내심을 달리 읽을 수도 있다. 왕실의 번영은 왕손의 다산에 있다. 덕종, 예종이 모두 20세에 요절했다. 왕의 건강이 왕실과 종묘사직의 건강이다. 비록 13세에 불과하지만 자율산군은 특정한 강골종이었다. 어느 날 뇌우가 몰아쳐 옆에 있던 환관이 벼락이 맞아 죽어 주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지만 자율산군은 얼얼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성종은 재위 25년 1개



경릉은...

덕종(의경세자, 1438~1457)과 원비 소혜왕후(1437~1504) 한씨의 능이다. 동원강의 능체를 따르고 있다. 서오릉에 들어선 최초의 왕릉이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볼 때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의 능이 있기 마련인데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왕비가 왕보다 더 높은 자리인 왼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남으로 1455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20세에 승하하여 대군묘 제도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1471년 둘째 아들인 성종에 의해 덕종으로 추존. 소혜왕후는 1455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성종이 즉위하자 왕대비(인수대비)가 되었다. 성품이 총명하고 학식이 깊어 부녀자들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기 위한 '내훈(內訓)'이란 책을 간행하기도 했다. 손자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폐비 사사 사건에 대해 보복하려 하자 이를 꾸짖다가 연산군에게 머리를 박히기 당한 얼마 후 승하했다.

월 동안 12명의 여인들에게서 16남12녀 도합 28명의 자녀를 생산했다.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소혜왕후(인수대비)도 무도한 손자인, 연산군 앞엔 무력했다. 노년의 기력을 다해 그의 무례와 부덕을 꾸짖다가 잠으로 여쳐구니없이 삶을 마감했다. 실록에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 할머니를 헤딩으로 박아 죽게 했다. 레슬링, 축구에만 헤딩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엄한 구중심 처에도 있었다. '야아! 야이고 머리아!' 왕후의 신음이 능침을 타고 내린다.

병풍석·무인석 하나 없이 아담... 조선 왕릉 중 가장 소박 소혜왕후는 왕대비로 승하, 왕의 능보다 높은 곳에 자리 조선 최초의 추존왕...승하 뒷날 3남 자율산군이 '보위'

산군은 운 좋고 잘난 아들이다. 그녀의 나이 32세에 세조가 승하하자 시동생인 예종이 19세로 보위를 잇는다. 그런데 예종은 재위 1년2개월 만에 요절한다. 왕위 계승 결정권자는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다. 왕릉 계승 후보자는 3명이다. 1순위는 예종의 직계 장남 제안대군. 2순위는 그녀의 장남인 16세의 월산대군. 3순위는 그녀의 차남 13세 자율산군이다. 세조비 윤씨는 3순위인 자율산군을 전격적으로 결정해버린다. 왕이 승하한 다음 날 바로 즉위시킨 유례가 없어 조

20세로 요절했고 당시 신분은 왕세자였다. 지아미 인수대비는 승하 당시 신분이 왕대비였다. 왕릉 자리 원칙은 남존여비가 아니라 군신관계 우선이다. 종묘사직을 위한 왕릉이기에 군신관계가 절대적이다

실제 재위하지는 않았으나 후대 왕이 선왕을 기려 왕위를 올리는 것이 추존왕이다. 조선 개국 이후 최초의 추존왕이 덕종이다. 원기에 시달리다 죽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1471년 덕종으로 추존했다.



소혜왕후의 능. 왕대비 신분으로 승하했기에 석물 장식이 정염하다.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 부산 불교강좌 개설 수강생 모집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에서는 경주·부산지역 불자들을 위해 불교기초교리반과 금강경반의 강좌를 부산 동구 초량동 소림사 불교회관에 개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 ※개강일시: 부산 - 2007년 9월 1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경주 - 2007년 9월 4일(화요일) 오후 3시
- ※강의장소: 부산 - 소림사 불교회관 3층 교육관
경주 - 동국대 사회문화교육원 5층 세미나실
- ※강 사: 정허스님(오덕선원장, 동국대사회문화교육원교수, 저자 직강)
- ※강사저서: 생활불교와 지혜완성, 금강경강해 등 외 12권

모집 인원	금강경반	기초교리반
1년	부산:70명, 경주:50명	부산:70명, 경주:50명
6개월		
수강 일시	부산:매주토요일2시30분-4시30분 경주:매주목요일 오후2시-4시	부산:매주토요일 오후5시-7시 경주:매주화요일 오후3시-5시
수강료	부산: 6만원×2회(2회 분납) 경주: 5만원×2회(2회 분납)	부산: 6만원 경주: 5만원

- ※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 달마도 등 원본 1점 증정 본 대학교 부속병원 이용 시 할인
- ※ 교육기간, 특전, 강사는 경주, 부산 동일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처: 경주 - 경주시 석장동 707 학사운영실 ☎ (054) 770-2554 ~ 5
부산 - 부산시 동구 초량동 974-2 소림사 불교회관
부산학사운영실 ☎ (051) 442-1280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형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 ◇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 ◇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 ◇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 ◇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 ◇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 등

- ◆ 특징: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 모집: 수시모집 - 맞춤형 개인지도 2개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중로 3가역 2번출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성령찬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